# 선민이 좌절시키는 신의 바람

## (이사야 15:1~9)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2.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 거리에서는 굵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4.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이 좌절시키는 신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이 좌절시키는 신의 바람'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노인천국이 될 판입니다. 대한민국에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바람 나는 삶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바라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선민들에게 집중됩니다.
선민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면 비로소 선민들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가 꺾이고 바람이 좌절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나라 또한 신바람 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절벽에 부딪혀 있어서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은 일손이 부족한데 왜 우리나라는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요?
일본이나 독일은 지방마다 장인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대기업 못지않은 삶이 보장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재벌이 60~70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걷어내고 나면 나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다는데 몇 십조씩 들여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제조업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의 말이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장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아이도 낳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연금이나 받고 모아둔 재산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라의 경제구조가 바뀌기 전에,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구조상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설령 집도 절도 없고 당장의 끼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야 바뀔 수 있지, 바뀌어야 신바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앞서 바벨론과 앗수르와 블레셋이 거명되었고 오늘은 네 번째로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거명되는 나라의 순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앗수르보다 나중에 일어난 나라였지만 가장 먼저 거명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 앗수르가 패권 국가였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이 먼저 거명되었고 앗수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이 따라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에브라임(북 이스라엘)과 다메섹(아람)이 나타난 후에는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남쪽의 구스(에티오피아)와 애굽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애굽은 구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남쪽의 두마(에돔)와 아라비아가 나오고 다시 북서쪽으로 올라가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열 나라가 거명 된 순서를 생각해보면 우선 패권국가인 바베론과 앗수르를 거명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인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 북쪽의 북 이스라엘과 다메섹, 남쪽의 구스와 애굽, 동남쪽의 에돔과 아라비아, 북서쪽의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거명되는 나라의 순서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접 국가를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멸망을 합니다.
먼저 패권국가인 바벨론과 앗수르가 거명된 이유는, 유다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인접 국가로 퍼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을 예언했고 따라서 이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직 유다를 침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나라의 멸망을 반가워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선취적 신앙입니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성전 생활화를 잘 했다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외형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선민들에 의해 성전의 의미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본래의 의미대로 성전의 상번제를 생활화하지 않음으로써 성전의 존재 의미를 없앤 것입니다. 유다가 성전 생활화만 제대로 했더라면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는 악역을 맡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영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통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먼저 거명한 이유는, 번제단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오감으로 접하는 세상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더 크게 실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을 우선시하고 더 크게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상번제를 통해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생활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상번제를 생활화하지 못한 채 세상을 우선시하고 크게 여기는 삶을 묵인한 채 형식상의 제사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의 의미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죄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가졌던 죄악의 힘을 이용하셔서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이 제대로 성전을 생활화했다면 바벨론에게도 구원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앗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국제정세는 앗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 북쪽에 북 이스라엘과 다메섹, 남쪽에 구스와 애굽, 동남쪽에 에돔과 아라비아,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까지 앗수르의 존재감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근동 전체가 앗수르의 존재감을 실감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의 나라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친 앗수르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과 반 앗수르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앗수르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실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앗수르와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상을 실감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11장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을 실감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생활화가 인접 국가로 퍼져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앗수르 존재에 대한 실감이 온 나라가 떨고 있듯이, 하나님을 실감함이 동서남북 온 나라로 퍼져나갔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선민은 복의 근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들로부터 복이 퍼져나갈 때에야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거명함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성전 생활화의 파괴였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앗수르를 거명함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아픔은 선민들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음이었습니다. 유다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감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선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앗수르의 존재감을 실감하듯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퍼뜨리기는커녕 내부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앎은 곧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앗수르 두 나라에 유다로부터 성전 생활화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이 퍼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었으나 선민들에 의해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블레셋과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다의 서쪽과 동쪽에 인접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을 옆구리에 가시로 표현할 정도로 선민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족시키실 때에도 블레셋은 남겨두셨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세상을 실감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문화가 선민들을 침범할 것을 우려하셔서 멸절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선민들이 살아있어야만 그 주변 국가들도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조차도 살리시기 위해서 멸절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적용시켜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도 이들을 블레셋이나 모압으로 여겨야합니다. 마음에서 블레셋과 모압을 멸절시켜야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해서 실감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크게 실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살리는 진정한 길은 먼저 마음에서 이들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에 인접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감함이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바람이 나지 않는 이유는 '신의 바람'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주셨으나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여 실감하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를 주셨으나 소중한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실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실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바벨론의 유전자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업체를 주신 이유는 귀중한 사업체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더 귀중하게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귀중한 사업체에 대해서, 귀중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이들을 실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나와 인접한 사람과 사물과 단체를 비롯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 유전자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끝났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에서 치워버립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실감되기 시작

합니다. 사업과 돈 문제가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감의 상태를 묵인할수록 신바람은 없어집니다. 신의 바람과 기대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거시는 기대가 사라지고 나의 삶에 신바람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들의 거명 순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가 성전을 충실하게 생활화하였다면 인접한 나라들에 하나님을 실감함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동서남북 나라들로 굳세게 밀고나가야 했지만, 오히려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앗수르를 실감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는 좌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삶에도 신바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나라들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가 제대로 행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멸망이 하나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불행은 내가 신의 바람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사업의 불행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와 인접한 모든 것들은 예견될 수 있고 가능했던 행복은 멸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의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힌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알면서도 생활화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막혔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무겁고 신바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자녀가 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현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더 크게 실감하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신바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